

11

2021. 354호

중요한 미래의 땅, 함천장수

뜨개고추 푸른 장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팔공산'

논개고을 푸른장수

2021년 11월 354호



평범하고, 평범했던 어느 날
다시 일상으로

“위드 코로나 꽃이 피었습니다”



06



12



20



30

04 장영수 군수 인사말

풍요로운 장수

- 06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역 축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 10 “어려다운 노인으로! 아름다운 노인으로!”
- 12 “장수 청년, 묻다”
- 14 장수군 지역 상권 인기 만점!
- 18 금강의 발원지, 그 뿌리의 시작, 장수 수분마을

미래의 땅 장수

- 20 <포토스케치> 장수의 특별한 할로윈
- 22 장수 농특산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24 장수군, 식용곤충·신(新)소득 작물 등으로 10년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 26 무령왕릉을 1442년간 지킨 장수가야의 “진묘수(鎭墓獸)”

힘찬 장수

- 30 장영수 군수, 생활 체육 중심 도시를 꿈꾸다!
- 32 다문화 소식
- 34 장수군의회 소식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 받아주세요. 이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우편 전북 장수군 호비로 10 '논개고을 푸른장수' 전화 기획조정실 063)350-2068 메일 jangsu7@korea.kr
발행일 2021년 11월 (통권 제354호) 발행인 장수군수 발행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편집인 이성철, 김현경 사진 문요한 디자인 퓨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장영수입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좋은 때’라는 득의지추(得意之秋)를 마음에 품고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축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여동안 지속된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변화시켰고, 장수군은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 철저한 방역과 개인 수칙을 이행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장수군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장수군에서도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 경제, 문화, 자치안전, 의료방역 등 분야별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수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1년 여 남은 민선 7기 기간 동안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쉽 없이 달리며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수군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새희망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장수-천천 하이패스IC 설치, 달빛내륙철도 경유역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구현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장수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기울어가고, 어느새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해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곧 다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장수군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장수군수 장 영 수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역 축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의암공원 일원과 장수군 유튜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장수군 의암공원에서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진행한 후 4일 동안 장수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축제를 진행했다.



온라인 축제! 뭐가 달랐나?

▶ 인기 유튜버 '섬마을훈태', '홍사운드'와 콜라보

축제 첫날인 28일과 마지막 날인 31일, 인기 유튜버 섬마을훈태와 홍사운드가 직접 장수군을 찾아 라이브방송으로 한우 먹방과 농특산물 홍보를 펼쳤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 방송용 컨테이너를 특별 제작,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군민, 도시민들과 소통하며 장수의 명품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 유튜버 '섬마을훈태'

▶ 트롯가수와 함께 하는 '라이브 커머스'

트롯가수들의 실시간 한우 먹방과 함께 신명나는 노래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시간!

29일~30일에는 트롯가수 양지원, 강혜연, 채윤, 안성훈 등과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장수의 명품 농특산물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을 판매했다. 한우 100세트 한정으로 진행한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았다.



▲ 라이브 커머스

▶ 한우, 어디까지 먹어봤니? 랜선 한우마당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우·마·당!!' 이번 '랜선 한우마당'은 사전신청을 통해 신청자를 받아 줌(ZOOM)을 이용해 함께 한우를 구워먹으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됐다. 서울, 경기, 제주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오로지 장수 한우를 위해 모인 사람들! 장수 한우 맛에 반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소문이~



▲ 랜선 한우마당

▶ '불, 철, 빛, 장수가야로 미래를 잇다' 2021 가야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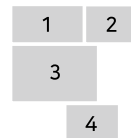
이번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식은 2021 가야문화제와 함께 펼쳐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가야문화제는 문화예술과 교육활동을 통해 '전북가야', '장수가야'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가야문화제가 장수의 주요 문화행사로 자리잡기 위해 개최한 축제다.

이번 가야문화제는 '불(Fire), 철(Steel and), 빛(Light), 장수가야로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파랑새 중창단, 타악연희원 아귀, 무예공연 예술단 지무단, 국악연주단 방주지악, 팝페라그룹 T&B 등이 함께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는 축제

폐막식에서는 이정규의 보이는 라디오로 노라조, 유리상자 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직접 장수군을 찾은 가수들은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1. 타악연희원 '아귀' 개막공연
2. 파랑새 중창단
3. 보이는 라디오 '노라조'
4. 보이는 라디오 '유리상자'



▲ 장수 추억의 사진전

▶ 일루미네이션,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볼거리

온라인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장수군 의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일루미네이션 전시와 사진전, 시화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2022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만나요~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도에는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게 됐지만 이번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개최되는 2022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장수의 명품 한우와 사과를 알리면서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이번 축제를 발판 삼아 내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온라인으로 개최해 안타까움이 컸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축제에 참가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른다운 노인으로! 아름다운 노인으로!

제25회 노인의 날 개최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된 법정 날인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이 바로 그 기념일이다!



제25회
노인의 날



장수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1월 1일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 7개 읍·면 어르신들과 함께 제 25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김용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오재영 장수군노인회장, 각 읍·면 어르신들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장 사전방역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노인강령 강독을 시작으로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장 전달식,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 기념사, 장영수 군수 및 내외빈들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날 도지사 표창은 계북면 정기택씨, 모범 표창은 장수읍 유상일씨, 산서면 권희상씨, 변암면 장재식씨, 장계면 육종길씨, 천천면 서옥순씨, 계남면 이현복씨, 계북면 한병원씨에게 돌아갔다.

이후에는 노인의 날 행사장에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품권 추첨과 송가인, 안성훈 등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대접받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청년... 묻다!

장수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한동안 N포세대라는 말이 굉장한 화두였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혼, 집, 연애 등 평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 이러한 심각한 청년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과연 장수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장영수 군수는 '장수청년, 묻다'라는 주제로 지역 청년들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년들은 장수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장영수 군수는 "취임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청년조례'였으며, 청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가장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수군 인구현황을 살펴봤을 때 70대 이상 5,600명, 60대 4,300명, 50대 3,600명에서 40대 2,450명으로 급감하고 있어 40대까지 청년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청년 농부를 위한 정책

군에서 현재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설치비, 부대시설, 스마트 팜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신설할 경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장수군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장수군에서 농업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싸게 살 곳이 필요해요

장수군의 주거부족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군에서는 LH와 협의해 2022년 장수읍, 2023년 장계면에 각각 120세대, 14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만큼 관내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 등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 주거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2시간 동안 장수군의 문화, 체육,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여러 분야에 대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청년 산.사.공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장수청년 '산사공'은 '산촌으로 온 뱃사공으로 귀농 귀촌인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힘을 합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찾고, 길을 환하게 밝히다'라는 의미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장수군 관광두레PD, 전북청년정책포럼단, 동화작가, 청년지역활동가, 교육네트워크 활동가, 청년 가수, 공연기획자 등 장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함께 하고 있다.



장수군, 코로나19에도
지역상권 인기 만점!

지역경제 활성화 UP

“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카페, 식당들이 줄지어 개업하며,
오히려 소상공인이 몰려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수군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 전통시장이용캠페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 ‘장수사랑상품권’

장수군의 지역화폐 ‘장수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할인율을
도입한 후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소로 자리 잡았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장수사랑상품권’이 지난해 4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5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상품권 할인율(평시5%,특별할인10%)을 도입한 후
월평균 3배 증가했다.

기관단체 판매액은 월평균 2150만5000원(2019)에서
1억 3100만원(2020)으로 6배, 개인 판매액은 월평균
1억1359만8000원(2019에서) 16억 1410만원으로 14배
이상 늘어 군민의 상품권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장수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이끌고 있다.





▲ 장수사과출하



▲ apc사과출하



▲ 붐비는 장수시장

●●●●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건립

장수군은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사업은 500억원 규모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현재 1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다.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있는 전북 동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건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농축산물의 수매, 선별, 가공, 판매, 마케팅의 완성형 공급체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레드푸드융복합단지과 진행중에 있는 종합유통센터가 완성되면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잉여 농축산물은 신선편이 가공동과 축산물 가공동을 거쳐 현지의 산지공판장에서 ON/OFF라인 경매 입찰이 이루어지며, 모든 이동라인은 방역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쇼윈도우를 통해 방문자에게 개방된다.

또한 이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 VR체험을 통해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쇼핑이 가능해지며, 메타버스를 통해 디지털로 구현된 스마트타운을 누비며 관광과 쇼핑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축이 될 전망이다.

●●●●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상인대학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군은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과 상인 대학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장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수시장만의 특색을 가진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장수시장 한마당 축제 등 문화·예술 공연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수시장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9월부터 8억 3500만 원을 투입해 시장 관리동을 리모델링, 장수시장 대표상품 개발, 상인대학운영, 장수시장 한마당 축제 등 활력 충만 거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시장에 이어 장계시장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상품 및 점포 육성·개발, 혁신상인 육성 등을 지원해 장수군 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장영수 군수 “지역경제가 살아야 장수군이 산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 모토는 ‘현장소통 중심, 부자 동네 실현’으로 정한 후, 장수군은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앞당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 부자동네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수사랑 상품권,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의 발원지 그 뿌리의 시작 장수 수분마을

금강천리 비단물길의 시작 '뜬봉샘'

철종, 고종 연간에 만든 동여도를 보면 뜬봉샘 일대가 금강지원(錦江之原)이라고 적혀있다. 금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물은 생명의 시작이요, 근원이다. 물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장수'다. 뜬봉샘으로 들어가는 길 초입에는 수분령(水分嶺)이라는 고개가 나온다. 말 그대로 물이 분기를 이루는 고갯길. 물이 어디로 갈라지냐에 따라 금강으로 흘러들어가기도, 섬진강으로 합류하기도 한다.

뜬봉샘은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9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해발 790m의 고원에 있지만 어떤 가뭄에도 물길이 마르지 않는다.

이 샘에는 이성계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 다니며 기도를 했으나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고, 이곳 신무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날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봉황이 올라간 곳을 찾아가보니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봉황(鳳)이 떴다고 하여 후에 뜬봉샘이라고 이름지었다고 전해져 온다. 뜬봉샘은 금남호남정맥길 등산로가 연결되며 백두대간 마실길 탐방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장수군이 지난 2011년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곳으로, 금강사랑 물체험관과 물의광장, 생태 연못, 미로원, 물레방아, 생태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방문자센터역할을 하는 금강사랑 물체험관은 장수군의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로도 지정돼 있다. 뜬봉샘 일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멸종위기 동물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한 야생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다.



물의 운명이 나뉘어지는 곳 '수분령'



장수읍에서 남원 방향 19번 도로로 약 8km 정도 가면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보인다. 이 줄기를 수분재(水分峙)라고 부르며, 재 옆에 위치한 작은 마을을 수분마을 또는 물뿌랭이 마을이라고 부른다. 예전엔 재의 중앙에 외딴집이 한 채가 있어 비가 오면 몸체의 용마루를 경계로 남쪽으로 떨어지는 지붕 물은 섬진강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떨어지는 지붕 물은 금강으로 흘렀다고 한다. 수분마을 밑에는 장수읍과 번암면 경계지점인 해발 600m의 수분령(水分嶺)이 있는데 여기에서 섬진강과 금강, 두 강줄기로 나뉘진다. 해발 539m의 수분령은 예부터 주변 고장이나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주변은 주막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이 길목을 지나는 길손들의 애환이 서린 휴식처가 되곤 했다. 이 수분령 주막 터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들어 헐렸다. 그리고 1996년 그 자리에 가든과 주유소가 들어앉아 수분령 휴게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금강의 뿌리 신아의 뿌리 '수분공소'

뜬봉샘 생태공원의 배후마을인 수분마을은 1만 명 가까운 순교자를 낸 1865년 병인박해 때 피신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교우촌이다.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취락지가 형성됐으며, 신앙의 중심인 장수천주교회 수분공소는 2005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돼 있다. 1913년에 지어져 1921년 전면 개축한 공소는 전면 6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한옥 양식으로 기둥과 벽, 마룻바닥, 제대 등이 원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높다.

수분공소 내부에는 고해성사를 하던 고해소와 사제가 옷을 갈아입던 제의방까지, 성당 고유의 공간이 잘 남아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미사가 집전되는 현역 공소다. 이곳 수분공소는 성지순례를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뜬봉샘으로 이어지는 원수분마을은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했으며, 물뿌랭이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의 자부심이 강하고 주민 협의체가 잘 조직돼 뜬봉샘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탐방로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할로윈데이: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



사(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장수 농특산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목표로
출발한 장수군 민선7기.**

'장수 5·4·8' 정책은 장수군이 더욱
잘 사는 동네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농업을 주요 소득원이자 근본으로 하는 장수군은
농업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
명품 한우, 사과, 물론
사람들이 '사(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자!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장수군은 산림이 7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장수군은 산림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과
규모화,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장수군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위해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에 힘쓰고 있다.



고품질 장수 한우 육성

장수 한우는 품질과 맛이 뛰어나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장수군은 고품질 장수 한우 육성을 위해
우량 수정란 이식,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용
및 생산장려금 지원, 축사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곤충 활용 산업

장수군에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개발중인 식용곤충 산업.
장수군은 식용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및 산업곤충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풍이', '장순이' 등 캐릭터를 개발해
군민들이 곤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케팅에도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장수군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고품질
신(新)소득 작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시범재배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한 애플수박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그린파파야 등도 시범재배 하고 있다.



장수군, 식용곤충·신(新)소득 작물 등으로

10년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국제연합(UN)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식량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수십억 마리의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사료 생산을 위한 경작지 감소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유엔식량기구의 미래식량 대안인 곤충산업과 신(新)소득 작물에 주목,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 미래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에 총력

장수군은 2018년 장수군 농업인대학에 핵심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산업곤충반 과정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식용곤충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곤충 종자보급소를 개소했다.

종자보급소는 표준사육기술 및 ICT기술 적용을 통한 무병 우량종충 생산을 위한 생산이력관리체계와 소독, 질병검사 등 표준화된 질병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곤충상품 이미지 확보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 '장풍야', '장순이'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식용곤충 판촉행사를 열어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하도록 마케팅 및 유통 활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군의 산림 활용한 신(新) 소득 작물 개발

장수군에서 재배되는 머위와 두릅은 청정 환경을 가진 장수에서 출하되는 대표적인 산림 소득 작물이다. 장수 두릅은 매년 꾸준히 판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수군에서는 지난해 23농가 10ha에 1억 822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두릅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병충해 방제용 연막소독기, 임산물 출하 전동운반차 등 기계화 정비와 임산물 출하 박스, 두릅 묘목 지원 등 두릅 재배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수군 땡양지마을의 머위 역시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땡양지산촌생태 마을에서는 35농가가 매산청풍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머위를 연중 생산하고 있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장수 머위는 노지에서 자란 머위보다 잎이 부드럽고 병충해가 적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다. 특히 사계절 내내 생산이 가능해 고소득이 가능하며, 장아찌, 환, 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먹거리 개발은 물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춘 시스템 도입

장수군은 농촌 고령화, 일손부족,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장수군이 운영 중인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은 224㎡의 면적에 548개 트레이를 3x2 층으로 설치해 상추 5,910주를 심어 생육 관리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노지 대비 200% 이상의 작물이 재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4월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이 재배안정성과 보급 가능성을 검증 받음에 따라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순환재배시스템은 스마트 제어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재배·병해충 관리에 효과적이며, 군은 앞으로 종합적인 DB구축과 피드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무령왕릉을 1442년간 지킨 장수가야의 “진묘수(鎭墓獸)”

이현석(장수군청 학예연구사)



▲ 진묘수 진품

1971년 7월, 멀리 충청남도 공주에서 우연히 벽돌 무덤 1기가 발견됐다. 이 벽돌무덤은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462년~523년) 부부의 묘로 일제강점기 다른 문화유산이 모두 도굴 당했을 때에도 도굴되지 않았던 무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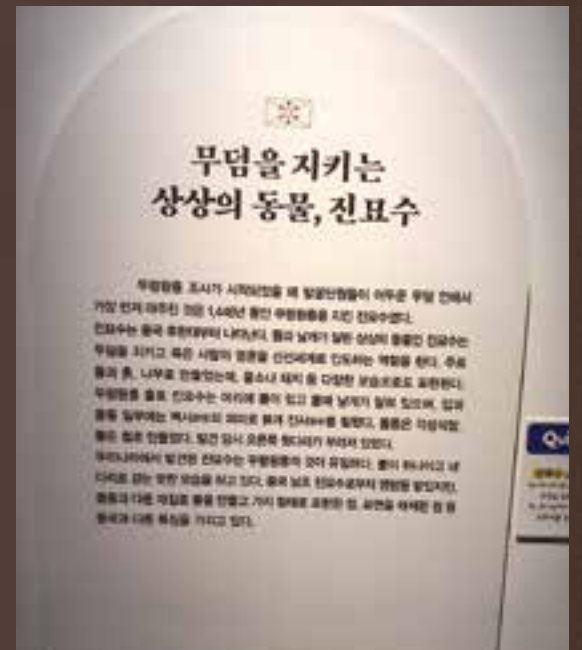
이 무덤입구에 놓인 묘지석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을 알려준 표시가 있는 것은 이 무령왕릉이 유일하다.

발굴단이 왕릉을 방문했을 당시 이 무령왕릉에서 발굴단을 처음 맞이한 것은 이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을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1442년간 무덤을 지킨 수호신 진묘수였다.

진묘수는 원래 무덤에서 출토된 짐승모양의 조각 품으로 후한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사람들은 진묘수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죽은자를 보호하고 죽은자의 영혼이 하늘로 무사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이처럼 중국 왕실의 장례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묘수가 백제에도 수용된 것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는 한반도에서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이로 인해 이 ‘진묘수’는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묘수는 국보 제162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높이 약 30cm, 길이 약 47cm, 너비 약 22cm이며, 무게는 42kg정도다. 그렇다면 장수가야를 이야기 하는데 왜 뜬금없이 백제 무령왕의 수호신인 진묘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진묘수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전북 장수이기 때문이다.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

무령왕릉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발굴단원들이 어두운 무덤 안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1,446년 동안 무령왕릉을 지킨 진묘수였다.

진묘수는 중국 후한대부터 나타난다. 뿔과 날개가 달린 상상의 동물인 진묘수는 무덤을 지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선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돌과 흙, 나무로 만들었는데, 물소나 돼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는 머리에 뿔이 있고 몸에 날개가 달려 있으며, 입과 몸통 일부에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붉게 진사(辰砂)를 칠했다. 몸통은 각섬석암, 뿔은 철로 만들었다. 발견 당시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진묘수는 무령왕릉의 것이 유일하다. 뿔이 하나이고 네다리로 걷는 듯한 모습을 하고있다. 중국 남조 진묘수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몸통과 다른 재질로 뿔을 만들고 가지 형태로 표현한 점, 표면을 채색한 점 등 중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무령왕의 수호신 “진묘수”의 채색 안료 및 암석을 분석한 결과 진묘수는 각섬석암으로 제작된 것이 밝혀졌으며, 이 원료의 산지가 “전라북도 장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만들어진 진묘수가 백제 25대왕 무령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 장수지역의 고대사에서 가야문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역사가 되었으며, 장수군은 봉화를 운영하고 첨단 철을 생산했던 가야 세력의 옛 지명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팔목할 만한 연구성으로 2019년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사적에 지정되었으며, 2021년 삼고리고분군은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장수 침령산성이 장수군 2호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진묘수로 인해 장수 가야사의 위상이 한층 더 드높여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백제의 위상을 드높인 무령왕의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시 백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며, 무령왕이 자신의 사후세계를 맡길 수호신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건너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장수군의 역사성을 밝혀내야 한다.

고대 역사기록에 장수지역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집지를 보내 백제에 진보(진귀한 보물)를 바쳤다”라는 기사가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점만 확인된 진묘수야 말로 당시 기록이 전한 ‘진보’가 아닐까 한다.

항상 주변국을 돌보며 강성했던 장수가야의 위상이 또 한번 드러난 이 역사적 사실이 밑거름이 되어 지역의 융성했던 고대 역사문화가 밝혀지길 바란다.



장영수 군수, 생활체육 중심 도시를 꿈꾸다!

2020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 4-5체급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백영복 선수와 여자6체급 8강에 올랐던 이근우 선수의 소속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군은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팀과 비장애인 실업팀을 동시에 육성하고 있는 전국 유일 지자체다. 또한 탁구뿐만 아니라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골프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 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영수 군수가 꿈꾸는 생활 체육 중심 도시, 장수는 어떤 모습일까?

장애인, 비장애인 실업팀 동시 유일 지자체

민선7기 공약 중 하나가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7개 읍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마련하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은 고스톱을 치거나 막걸리를 드시면서 소일거리 하는 게 여가의 전부였습니다.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운동, 무용, 판소리, 요리, 등을 선호하셨고 이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탁구대를 놓고, 게이트볼장 시설을 개선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군민에게 전하는 희망, 그것으로 족하다!

의회나 농민회 등은 장수가 농업 중심 도시라는 점에서 농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가 40명을 넘습니다. 당연히 장수군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군수가 된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살을 줄이는 방법은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함께 모여 신나게 운동하고 즐겁게 집에 가고 인생 향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성과로 예산 4,000억 시대를 조기에 달성한 거고요. 게다가 얼마전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백영복 선수가 은메달을 따왔잖아요? 장수군 이름도 더 알려졌죠. 제 입장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건립계획, 다양한 대회 유치 희망

장수군은 앞으로 탁구와 실내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하는 체육관을 계획 중입니다. 서른 대 이상의 탁구대 설치가 가능한,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이미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이면 장수군에 멋진 실내체육관이 들어서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체육관을 완공한 뒤 다양한 대회들을 유치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전국대회는 물론 장수군 이름을 내건 장애인탁구대회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 2만 내외의 작은 지역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경기를 치르면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장수 사과와 한우를 드시면서 멋진 대회를 여는 풍경, 상상만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생활 체육 중심 도시, 장수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위안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스포츠인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이면 우리 장수에도 훌륭한 경기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장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멋진 경기를 즐기고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아울러 그리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장수 소속 선수들과 각종 생활 체육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장수군 결혼이주여성들의 특별한 봉사활동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천현우)는 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1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이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을 지원해 8명의 한식조리기능사를 배출했다.



배출된 한식조리사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음식솜씨를 발휘하여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의 음식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1~2회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체류를 하고 있던 베트남 대학생 28명을 위한 음식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3~4회차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5회차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43명에게 1인당 배추김치 4리터, 깍두기 4리터, 연근조림 1.5리터, 멸치볶음 1.5리터씩 각 4통의 밑반찬을 제공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은 동행복지재단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의 교육비를 후원받아 진행하였으며, 센터는 2022년 양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을 공모 지원한 상태이다.

천현우 센터장은 “현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에 참여하였던 자격증 취득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조리 기능사 과정에도 참여토록 독려할 예정이며,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자리는 신규 참여자로 진행하여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8대 장수군의회 의회 소식

[2021년 4분기]



2021년도 4분기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2회 개최, 28건 의결

<조례안 13건,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2건, 결의안 1건>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021년도 4분기에 제3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331회 임시회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13건,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읍면 7개 사업장의 사업 추진여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 동안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안내

○ 기 간: 2021. 11. 18.(목) ~ 12. 17.(금) (30일간)

○ 내 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2021년도 4분기 상임위원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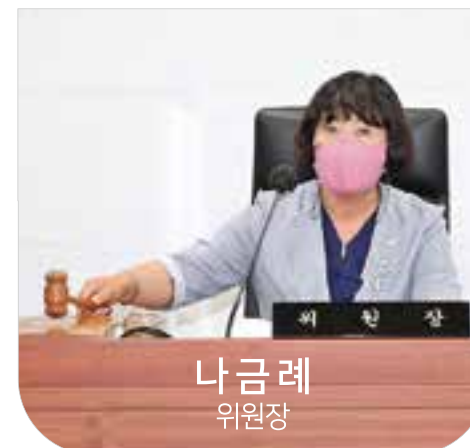


행정복지위원회

17건 심의·의결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2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화식)는 2021년 4분기에 총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심의·의결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금례)에서는 2021년 4분기에 총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2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총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의원 발의 조례

4건 의결

장정복 의원: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화식 의원: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김종문 의원: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장정복 의원



최화식 의원



김종문 의원

2021년도 4분기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읍면 7개 사업장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10월 13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해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 3일동안 읍면 7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시설 구축에 따른 명확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장기적 관점에서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등 개선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장정복 의원

장정복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1.10.13.)에서 8~9월 지속적인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벼 병충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벼 병충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제331회 임시회(2021.11.10.)에서는 장수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장수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확대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군에 제안했다.

QA 군정 질문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9.24)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장수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언급하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고령농 벼 육묘 지원사업'을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또한, 10월 13일 제330회 임시회에서는 저녁시간 이후 운행되는 장수읍 야간 택시의 부족에 대해 언급하며 '장수읍 야간택시 당번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나금례 의원

나금례 의원은 9월 3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필수적인 기자재 구입과 농가, 행정, 농협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 초 건립된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이 농산물 유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군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국희 의원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10.13)에서 한국희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도 721호선 중 산서 대창마을에서 ~ 이룡교 구간의 노선 개량을 적극 검토할 것과 오산리 앞 덤프트럭의 과속방지 대책은 물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서 하월리 돈사 악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군에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

장수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10월 1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기존 학교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마주하게 될 시대에 평생학습은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이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 집행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수군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제26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 개최

렛츠런팜 장수목장 경마장 유치 건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에서는 10월 21일 제268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은 5개 시·군으로 연계된 말산업 특구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며 '렛츠런팜 장수목장 경마장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장수군은 렛츠런팜 장수목장을 비롯해 한국마사고, 승마 레저파크 등 말산업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경마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며 '렛츠런팜 장수목장 내 경마장 유치는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렛츠런팜 장수목장은 승용마의 생산과 육성·조련을 통해 경주마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마 사업을 지원하는 후방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전장지점

☎ 상담문의
063-433-8402~4

사업자 여러분께 지원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등 대상자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전장지점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대상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장이 장수군 내에 소재하고 업력이 3개월 이상(영업 중)일 것
2.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등급이 779점 이하 (595~779)일 것
3. 장수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

보증한도

같은 기업 당 30백만원 이내(재단 기 보증 포함)
⇒ 대표자 신용등급, 업력,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에 따라 보증한도 결정됨

대출금리

- 분할상환방식: 약 연 0.1%(변동금리)
- 보증료 연 1.0% 별도부담

대출기간

분할상환방식: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본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 및 계정과목별 부속명세서
- ⇒ 기타 추가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전장지점 및 대출취급은행에 문의 요망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절차



승마체험과 관광은 장수의 지름길

전라북도

장수에서 말 달리기!

